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7월의 선교사(조성우)를 위한 기도

찬양*

주 은혜를 받으려(찬 39)

사랑을 구하는 사람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기도인도

봉헌*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말씀교독

사도행전 17:1-9

특별찬양

참 좋으신 주님

말씀선포

“고난을 당하시고”

찬양과결단*

내 주님 지신 십자가(찬 339)

축도*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7월의 선교사는 조성우 선교사(러시아)입니다.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 오늘부터 6주간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7/14(수)에 타운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예배당 건축 마무리를 위한 미팅을 합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 7/24(토)부터 9/11(토)까지 8주간 2021 Back to school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손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 교인의 기도로 서포트 받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새 예배당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허가를 받아 속히 입당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7.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역자훈련(6주)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6주간 “사역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하면, 직분자(장로,집사,권사)와 제직부서장, 목자목녀와 교역자들을 포함합니다. 간혹 사역자 라고 하면 목회자(교역자)를 일컫는 말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역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금년의 사역자훈련은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6주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개의 질문입니다.

- 1)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 2)교회 재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총회 강사 방문)
- 3)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 교단 특징과 교회 비전
- 4)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5)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 6)어떻게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커리큘럼도 수정되지만 진행 방식도 바뀝니다. 일방적 강의보다는 interaction 방식을 취합니다. 강의,세미나,포럼,심포지엄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세미나와 포럼의 중간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받은 포스트잇과 사전설문지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3주 시간은 사역자에게만 제공하지만, 4-6주 시간은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 때문입니다. 장소는 친교실에서 하는데 1시 전에는 YG와 ESC가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1시에 시작을 합니다. 들어가실 때 설문지 혹은 포스트잇을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을 위한 간단한 식사(김밥)를 제공합니다. 참석 시간에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제공되는 양육의 시간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